

“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”에 대한 논평

안 병 환

(대전대학교)

이번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의 종교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것이다. 이는 글자 그대로 종교가 사회를 위해서 과거 어떤 일을 해 왔고, 현재 어떤 일을하고 있으며,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.

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화 담당자의 하나인 종교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사회통합 및 사회변동이라고 답할 것이다. 따라서 어떠한 종교든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.

구교수님은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.

첫째, 이상적 사회기능으로서 대순진리회에 함의되어 있는 종교의례의 의미 또는 신자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한 대 사회활동을 「전경」을 통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평등사상, 제생사상 및 교육사상을 도출하였다.

둘째, 실천적 사회기능으로서 사회활동이나 봉사의 결과를 몇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구호자선사업,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.

셋째, 이후 어떠한 기능을 좀 더 추구하고 발휘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.

이상을 통해서 보면, 이상적 사회기능에 기초한 현실적 또는 실천적 사회기능을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.

그러나 본 논자의 생각으로는 종교에 따라 다소 지향점이나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, 우선적으로 종교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 형성이라고 생각된다. 이는 곧 사회통합과 직결된다고 본다.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, 대순진리회는 구성원 상호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공존을 통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해원상생(解冤相生)이라는 중요한 정신적 모체가 있다고 생각된다. 이 말에는 계층간 갈등, 빈부간 갈등, 남녀간 차별, 지역간 갈등 등 우리 인간에게 쌓인 모든 원한과 갈등을 풀고서 진정으로 화합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.

물론 짧은 지면으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,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찰은 해원상생을 근간으로 하여 그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. 뿐만 아니라, 이후 더 발휘되어야할 기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언급을 더 추가했으면 한다.

나아가, 모든 종교가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의 조화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하나의 합일점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뒤따라야 하며,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 이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.

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, 이상을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더 구체화 되었으면 한다.